

오순절 후 열한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1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8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8장 “내 영혼아 곧 깨어”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3 번 시편 (Psalm) 15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Hebrews) 11:13-16	김종각 집사
설 교 Sermon	“믿음은 죽음으로 증명됩니다” (Faith Is Approved by Death)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70 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새 50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지었던 죄(Sin of Commission)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었던 죄(Sin of Omission)를,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 55:6, 엡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한글개역 **히11:13**)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from a distance. And they admitted that they were aliens and strangers on earth.” (NIV **Hebrew 11: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16 (주일)	8/17 (월)	8/18 (화)	8/19 (수)	8/20 (목)	8/21 (금)	8/22 (토)
	삼상7,8	삼상9	삼상10	삼상11	삼상12	삼상13	삼상14
본문	룠6 렘45	룠7 렘46	룠8 렘47	룠9 렘48	룠10 렘49	룠11 렘50	룠12 렘51
	시20,21	시22	시23,24	시25	시26,27	시28,29	시30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8/19수 오후7:30)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민 22:21-35)
토요 새벽기도회 (8/22토 오전6:30)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나”(시 4:1-8)

지난 주일(8/9, 창립기념주일)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렘 29:4-7, 벰전 24-9)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Basileia tou Theou, The Kingdom of God)'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정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또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 하고(렘29:4-6 참고, 히13:15-16), 2)둘째, 우리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더해가며(벰전24), 3)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순종'을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벰전27-8).

(왜냐하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Gathering Church)이든지, 또는 흩어지는 교회(Scattering Church)이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정표로서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